

공적 기억을 활용한 공원의 기원과 특성^{*}

손은신*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머리말

공원 설계 과정에서 '기억'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설계 전략을 구상하는 중요한 요소다. 근대 산업 시설과 노후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남겨진 기억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post-industrial park)은 보편적인 설계 전략의 하나가 되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메모리얼은 도시 공간에 편입되어 공원처럼 기능하고 있다. 독일 뒤스부르크 노르트 공원(Landschaftspark Duisburg-Nord), 선유도공원, 뉴욕 하이라인(High Line), 서울역 고가공원 등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대표 사례이며, 뉴욕 9.11 메모리얼과 독일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서대문 독립공원 등은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 기념공원의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공원은 언제부터,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가? 도심에서 자연을 제공하는 녹지이자 공공 오픈스페이스인 도시 공원에 어떻게 기억의 장소의 특성이 부여되었는가? 이 연구는 기억이 공원 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배경을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도시에 조성되는 기억을 활용한 공원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공적 기억(public memory)과 이를 활용해 조성된 장소가 등장하기 시작한 1980~2000년대의 사회적 배경 및 학문적 논의를 탐구한다. 뒤이어 기억을 활용한 공원의 유형을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과 기념공원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조경적 특성을 분석한다.

II. 공적 기억과 장소에 대한 논의

공원 설계에서 활용되는 기억은 어떤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공적 기억이자 집단 기억(Halbwachs, 1950)이다. 공적 기억(public memory)은 “특정 집단 구성원 간에 통용되는 기억(Houdek and Phillips, 2017)”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실상 용어 자체의 개념보다는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사회적 배경과 학문적 논의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공적 기억은 1980년대부터 역사학, 언론정보학, 수사학, 종교학, 건축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공적 기억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를 대중 연설

이나 메모리얼, 박물관, 기념일, 영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부터 공공 공간에 조성되는 메모리얼이 증가했고, 대중이 매체를 통해 접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경향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메모리 붐(memory boom)”이라 칭하기도 한다(Houdek and Phillips, 2017).

메모리 붐의 주요 요인으로는 대중 매체의 급속한 확산, 역사적 주체와 인식의 변화, 급격한 사회 변화에 의한 기억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대중 매체의 확산으로 대중을 공통의 기억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규합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Houdek and Phillips, 2017: 2), 이로 인해 기억은 역사가가 저술한 정통의 역사(History)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역사는 미시적 역사들(histories)로 분할되었고(전진성, 2005), 개인과 대중이 주체가 된 기억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오늘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반작용으로 상실된 기억을 기록하기 위한 “기억의 장소(Nora, 1984)”가 등장했다. 근대사학자 윈터는 노라의 기억의 장소 이후 역사학 분야의 논의 주제가 계층, 인종, 성별에서 공적 기억으로 변화되었음을 언급하며, 메모리 붐 현상의 사회적 동인을 분석하였다(Winter, 2001).

특히 노라의 기억의 장소 논의 이후 장소 기억과 관련하여 공적 기억의 장소인 박물관, 기념물, 메모리얼 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대표적 사례로는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이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등이 주요 논의되었다.

III. 기억을 활용한 공원의 유형과 특성

1.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본 연구는 기억을 활용하여 설계된 공원을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이 장소의 물성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여 남겨진 기억을 활용하고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메모리얼 또는 기념공원은 장소에 담길 기억이 어떤 집단에 의해 정해지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초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대표적 사례로는 시애틀의 가스 워크스 파크(Gas Works Park)와 독일 엠서 지역에 계획된

*: 이 논문은 2018~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NRF-2016R1D1A1B03933802)의 일부임.

대표적 공원인 뒤스부르크 노르트 공원이 손꼽힌다. 이처럼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이 초창기에 서구권 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도시 구조적 차원에서 유럽과 북미 지역에 발달했던 산업 도시의 쇠퇴에 따라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공간을 재활용할 전략이 필요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과도 연관된다. 즉, 기존 자원을 재사용하고, 도시의 쇠퇴 지역을 재생하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속한다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Braae, 2015: 11-12)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전략이 적합했던 것이다.

또한, 정원 및 공원에서 기억의 흔적(mnemonics)을 활용하는 조경의 전통적 접근 전략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도 적용된다. 센트럴 파크를 비롯한 주요 공원 풍경의 원형으로 알려진 18세기 영국 풍경화식 정원에는 폐허를 연상주의적 방식에 따라 미적으로 경험하는 방식(Hunt, 1981)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폐허 미학의 전통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다시 등장했는데, 일레로 가스 워크 파크에 대해 마이어는 공원의 공장 시설이 산업 잔여물인 동시에 방문자에게 장소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기억의 장치라고 평가했다(Meyer, 1998). 뒤스부르크 노르트 공원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피터 라츠(Peter Latz) 팀은 다른 참가자들이 낡은 흔적을 깨끗하게 치운 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기존 공장 지역의 흔적과 구조물을 반영하여 이를 유지하고 정비하는 안을 택했다(Braae, 2015: 11).

2. 메모리얼 또는 기념공원

공적 기억에 기반하여 조성된 메모리얼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메모리얼 파크라 지칭되는 묘지공원과 공적 기억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기념공원의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묘지공원은 중세 교회 묘지에 시신을 안장하던 유럽적 전통에서 출발한다. 특히 18세기 정원 연구를 살펴보면 당시 정원에서 무덤은 자연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념의 방식으로 여겨졌으며(Dorgerloh, 2012), 정원을 죽은 이와 함께 끊임없이 과거를 기념할 수 있는 잠재적 매장으로 인식하기도 했다(Hunt, 2001).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기념공원의 경우, 대부분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을 배치하고, 동상이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공공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이처럼 20세기 초중반 메모리얼을 조각상 중심으로 조성하던 전략과 오늘날의 변화를 “조각상 마니아(statue mania)에서 메모리얼 마니아(memorial mania)(Doss, 2010)”로의 이행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국내의 경우,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동상 건립과 연관된 메모리얼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공적 기억을 활용한 메모리얼은 묘지공원이나 조각상 위주의 기념공원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오늘날 메모리

얼에서는 영웅보다는 피해자, 다수보다는 소외된 소수, 기념할 만한 사건보다는 기억해야 할 사건이 기념의 대상이 된다. 이는 공적 기억에 대한 대중의 기념 급증,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 문제에 대한 대응,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의 등장(Winter, 2001)과 특히 관련이 깊다. 홀로코스트, 9.11 테러 등에 대한 공적 기억을 장소에 기록하고,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한 메모리얼이 주류로 등장하였으며, 아일랜드계-미국인, 유태계-미국인처럼 하이픈(-)으로 연결되는 민족 집단의 정체성 정치가 등장하면서 소수 집단을 위한 메모리얼이 세워졌다. 그리고 이 기념 대상의 범위는 민족이나 인종에서 계층, 성별, 질병 등에 의한 여러 소외 집단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IV. 맺음말

19세기 중후반 도시 공원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열악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근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발명되었다면, 약 1세기 후인 오늘날 새로운 국면의 도시는 노후화된 장소를 변화시키고,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공적 기억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의 도시 공원을 출현시켰다.

기억을 활용하여 설계된 도시 공원은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 도시에 대한 해법이자 대응책이 되었으며, 장소의 기억과 장소성을 활용한 설계 전략은 보편적인 조경 설계 전략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억을 활용한 공원의 등장 배경 및 특성, 이에 기반을 둔 설계 전략의 발전이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1. 전진성(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2. Braae, E.(2015)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Basel: Birkhauser.
3. Dorgerloh, A.(2012) Strategien des Uberdauerns. Dusseldorf: Grupello.
4. Doss, E.(2010)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 Halbwachs, M.(1950) La Memoire Collective, Paris: Universitaires de France.
6. Houdek, M. and K. R. Phillips.(2017) Public Memor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7. Hunt, J. D.(1981) Picturesque mirrors and the ruins of the past. Art History 4(3): 254-270.
8. Hunt, J. D.(2001) Come into the Garden Maud: Garden Art as a Privileged Mode of Commemoration and Identity. J. Wolschke-Bulmahn (ed.) Places of Commemoration.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pp. 9-24.
9. Meyer, E. K.(1998) Seized by sublime sentiments: Between terra firma and terra incognita, William S. Saunders(ed.) Richard Haag: Bloedel Reserve and Gas Works Park.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5-28.
10. Nora, P. et al.(1984) Les Lieux de Memoire, Paris: Gallimard.
11. Winter, J.(2001) The generation of memory: Reflections on the memory boom in contemporary historical studies. Canadian Military History 10(3): 57-66.